

학생부평가 귀찮다 '붙여넣기' 선생님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특기사항란에 같은 문장을 토씨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적어넣은 무성의한 교사들이 적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의 최근 감사결과 광주 의 한 초등학교 A 담임교사는 전체 학생 28명의 '독서교육' 항목에 "아침시간에 독서를 생활화하고 독후활동을 잘하였습니다"라고 적었다. '진로지도 상황'에도 전체 학생에게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적합한 직업을 탐색하고 특기개발에 힘씁니다"라고 기술했다. 학생부 특기사항(창의적 재량활동·영어활용능력 신장교육) 항목에는 모두 "영어인증제 급수를 취득하였습니다"라고 썼다. B 담임교사는 '진로지도 상황'에 2개의 동일한 문장을 각각 13명, 15명 학생에게 똑같이 썼다. 해당 문장은 "희망을 이루기 위한 열의가 있으며 좋은 결과가 기대됩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진로 희망이 일치하며 꾸준한 노력으로 목표에 도전할 것을 권

고합니다"였다. 이는 교육과학기술부 훈령(학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을 어긴 것이다. '진로지도 특기사항'의 경우 특기, 진로 희망과 관련된 학생의 자질, 학생이 수행한 노력과 그 활동을 기록하고 단순한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창의적 재량활동 특기사항'에도 비슷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 교사는 시교육청 감사담당자에게 "과중한 업무 때문에 학생부 기재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시교육청은 이들 교사들을 주의 조치하고 학생부를 정정할 것을 주문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학생부가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을 복사해 붙여넣기한 것으로 보인다"며 "일시 전향의 기준이 되는 고교 학생부와 달리 초등학교 학생부는 학생 개별 평가에 적용되지 않는 점 때문에 교사들이 소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운영기자 penfoot@kwangju.co.kr

휘청이는 전남대 개교 이래 최대위기

총장선거 수사...지도부 공백 대혼란 역량강화사업 탈락...정부지원 소외

개교 60년을 맞은 전남대학교가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김윤수 총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당선자(1순위)가 검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대학 내 혼란은 물론 리더십 부재에 따른 각종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전남대에 오는 15일까지 총장 직선제 폐지 찬성 여부에 대한 결정을 요구해놓은 상황에서, 이를 검토해야 할 지도부가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 없어 대학의 위기는 더욱 깊어졌다. 오는 8월말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이, 9월에는 구조개혁 중점추진 대상 대학이 각각 발표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3면> 전남대는 직선제 폐지에 동의하지 않은 탓에 이미 지난 4월 교육역량강화사업에 탈락해 50억여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은 상태에서 더욱 불리한 상황이다. 대학의 존립을 좌우할 수도 있는 학자금 대출제한과 구조개혁 대상 심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전남대는 이번 총장 선거 수사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교과부 평가에 대한 대응은 고사하고 갈피마저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전남대가 이번에 탈락한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지표는 총장직선제 개선·기성회 회계 건전성·취업률·재학생 충원율 등 9개 항목으로, 구조개혁 대상 평가지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오는 9월의 평가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남대는 취업률을 비롯한

상당수 평가지표들의 평점이 안정권에 들지 못한 상황에서 이번 총장선거 수사까지 더해져 자칫 학자금 제한 대학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하는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지금까지 총장 직선제를 고수하고 있는 5개 국립대 가운데 전북대 등 4개 대학은 지난해 총장 선거를 모두 마치고 현재는 차기 선거의 직선제 폐지 여부를 논의중이지만 전남대는 아직까지 논의조차 못한 상태다. 이 때문에 교과부는 4개 대학에는 오는 8월말까지 직선제폐지 여부를 결정하라고 통보했으나, 전남대에 한해서는 이달 15일까지 결정할 것을 요구한 상황이다. 결국 정부 정책에 호응하지 않는 대학으로 분류돼 '미운털'이 박힌 상황인어서 교직원들의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호남지역 거점 국립대학인 전남대가 위기를 느끼는 것은 지난해 교과부의 해당 대학들에 대한 강력한 제재 탓이기도 하다. 전북지역 한 대학의 경우 지난해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으로 선정되면서 올해 학생 모집에 영향을 치렀다. 또한 강원대는 직선제를 고수하는 바람에 국립대임에도 불구하고 구조개혁 대상에 포함되는 불명예를 안기도 했다. 전남대의 한 관계자는 "총장 선거와 관련한 수사가 신속히 마무리되어야 한다"면서 "집행부가 공백이나 마한 가지어서 정부 평가에서 최악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만큼 전남대를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재희기자 chae@kwangju.co.kr



전남대가 총장 선거에 대한 검찰 수사와 정부의 구조개혁 대상대학 선정 등 각종 평가가 다가오면서, 개교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4월 '지식의 역사, 꿈을 더하다'라는 개교 60주년 홍보 현수막이 걸린 컨벤션홀 앞을 학생들이 지나고 있다. /내명기자 mjna@kwangju.co.kr

F1대회 운영비 또 누락

전남도 요구 현안사업비 부처 심의서 반토막

전남도가 요구한 내년 국고 건의사업비 절반이 정부 부처 반영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회제를 맞는 F1대회 운영비용은 올해도 정부부처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해 또 국회의 눈치를 봐야할 할 처지에 놓였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예산안 중 전남도가 요청한 사업의 예산반영 규모는 4조48억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도가 요구한 8조1267억원(신규 230건 1조5918억원·계속 140건 6조5349억원)의 절반 수준이다. 주요 반영 사업은 사회간접자본(SOC)의 경우 호남고속도로 1조5000억원, 여수~고흥 간 연륙~연도교 763억원, 압해~압태 간 새천년대교 394억원, 진주~광양 간 철도 복선화 1500억원 등 2조1673억원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농림수산물분야는 시설원예설치 용자지원 등 1조561억원, 해양수산분야는 수출양식단지 양식시설 조성 등 357억원, 관광문화분야는 다도해 종합개발사업 등 1978억원이 반영됐다. 미반영된 주요 사업은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개최 지원비 240억원과 과학로봇 연구센터 건립비 등이다. 특히 F1대회 개최 비용은 지금까지 한차례도 부처 예산에 반영된 적이 없어 올해도 국회에서 여야의 도움을 받아야할 처지다. SOC사업 중에는 광주~완도 간 고속도로 1000억원, 보성~임성 간 철도 건설 1498억원 등이 반영되지 않았다. 전남도는 부처계획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은 기획재정부와 국회 심의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특히 전남대가 이번에 탈락한 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 지표는 총장직선제 개선·기성회 회계 건전성·취업률·재학생 충원율 등 9개 항목으로, 구조개혁 대상 평가지표와 동일하기 때문에 오는 9월의 평가를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전남대는 취업률을 비롯한

신성자동차㈜ www.gbenz.com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한-EU FTA 관세인하가격 판매
062)226-0001
Mercedes-Benz

알림

'광일춘추' 필진 바뀝니다

전국 대표 지방 정문지들의 모임인 '춘추사'가 국내 정상급 필진을 초대, 공동 게재하는 목요일 필진 '광일춘추'의 필진이 새롭게 바뀝니다. 광주일보를 비롯, 부산일보·매일신문·경남신문·강원일보·대전일보·전북일보·제주일보 등 지역 대표신문 9개사는 각계 전문가로 필진을 구성, 한국 사회의 이슈들을 날카롭게 파헤칠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변함없는 관심 바랍니다.

◇인톤 솔츠(40) 코리아컨설트 대표 ▲독일 함부르크대 한국학 석사 ▲조선대 인문대 교수 ▲독일 대사관이 선정한 한독 관계에 이바지한 50인 선정 ▲광주문화재단 정책 자문위원	◇박중화(37) 서울대 음대 교수·피아니스트 ▲뉴잉글랜드 음악원 수석 입학·졸업 ▲스페인 마드리드 소피아 왕립음악원·독일 뮌헨음대 최고 연주자 과정 ▲부초니·루빈스타인·산타테레 콘쿠르 우승·입상
◇박석무(70) 다산연구소 이사장 ▲전남대 대학원 법학 석사 ▲제13·14대 국회의원 ▲단국대 석좌교수 ▲김대중·노무현대통령 기념공민위원회 이사장	◇권혁남(57) 전북대 사회과학대 교수 ▲고려대 대학원 언론학박사 ▲미국 인디애나대 교환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한국언론학회 회장

光州日報社

MUSEO 뮤제오

Luxurious Furniture
이태리의 명품 수입가구-광주에서 만나다!

이탈리아에 가지않아도...
서울 강남에 가지않아도...
광주에서 만나는 고품격 이태리 명품가구!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 / 실내장식
신세계백화점
●관효빌드
뮤제오
●메리트로 웨딩홀
●중앙역 동명빌딩 상층부
●충무로 KB 국민은행 상층부
●농성동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80-3(메리트로 웨딩홀 건너편)
Tel 369. 9100 Fax 369. 9101

|"JUMBO"와 독점 판매 계약 | 이태리 명품브랜드 취급사 | 정보 | 프론트바 | 메세아 | 실버노 | 데포카 | 체피 | 라몬데시나 | 오리자날레 | TV 인기드라마 협찬업체 | SBS "대물" | KBS2 "꽃보다 남자" | KBS "아가씨를 부탁해" 등 다수

SALE

up to 80%
on selected items

광주를 리더하는 특별한 분을 위한 혜택!
세계 명사들의 사랑을 받아온 이태리의 명품 수입가구를 뮤제오매장에서 확인하십시오.

이태리 명품수입가구 & 소품 / 실내장식
신세계백화점
●관효빌드
뮤제오
●메리트로 웨딩홀
●중앙역 동명빌딩 상층부
●충무로 KB 국민은행 상층부
●농성동